

交通放送, 국립공원사랑글짓기 生放弘報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예…저가 사무국장인데요……」 「교통방송입니다」 7.7, 토요일 오후 2시 42분. 한가한 사람이면 오수를 즐길 '시간. 교통방송국에서의 생방송중계였다. 이정명PD 진행의 각계인사 탐방프로인데 친절하게도 그늘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원협회까지 연결해준 성의가 우선 고마웠다. 피꼬리와같은 맑은 목소리의 女아나소리가 들려온다 「요즘 하시는 중요행사의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우리협회가 주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서울신문사가 후원·코오롱스포츠가 협찬한 제 1 회 전국 초·중학생국립공원 사랑글짓기 작품공모가 6.10~7.20에 마감된다는 내용과 전국에서 많은 작품들이 속속답지되는 기쁨을 알리고 제 2 세대를 통해 자연사랑이 곧 나라사랑이며 환경오염 방지사상이 애국심과 연결됨을 일깨우는 국토사랑운동의 행사임을 강조.

국립공원 더럽히려 매도한 「라디오칼럼」

○……7.21, 상오 11시 어느 방송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라디오칼럼」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오늘 날 과잉된 등산인파에 의해 오몰투성으로 몸살을 앓는 우리山野의 참상과 더럽히려는 무절제한 행락객을 매도하는 날카로운 소리…… 百年목은 체중이 내려가는듯. 치우는者만 나무라기 보다 이젠 버리는者를 미워하고 범이전에 도덕적으로 규탄해야 옳다.

버리는者가 있는限 우리山河는 망해갈 뿐이기에. 아나씨왈…「미국처럼 국립공원 관리자에게 처벌권을 주자……외국선 아무데서나 밟짓고 소란피우는건 상상도 못한다.……휴지나 오물 함부로 버리면 몇百 \$벌금은 용서없이 나온다.……」고 경고적이며 계도적인 후련한 내용.

正二品소나무를 살리자……朴璟洙지부장 호소

○……7.24, 오후9시 MBC뉴스는 또다시 죽어가는 속리산국립공원 입구의 正二品소나무의 소생방법

을 둘러싼 각계의 의견을 방영. 이날 평소 속리산의 야생식물보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朴璟洙 본회 속리산西部지부장도 등장되어 「있이 시들고있어 노쇠화한 것같으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

七甲山の 山林浴場 KBS TV에도 소개돼

○……지난 8월1일 밤9시 KBS1-TV는 정규뉴스가 끝나자 동TV는 大田로칼뉴스시간에 七甲山도립공원의 자연풍경을 소개하였는데 울창한 숲속에서 산림욕을 하면서 책을읽는 시민의 모습과 조각가인 七甲山 朴七星지부장, 車敬煥사무국장(靑信女中교감)과의 山林浴에 관한 인터뷰내용도 방영.

또한 8월4일 아침의 KBS2-TV 「전국은 지금」 프로에서도 전국넬으로 방영.

朴炳柱이사 水防對策 MBC토론에 참가

○……9.12, 새벽3시50분경 漢江독이 터져 많은 수재민과 농경지4만헥터를 침수시킨 高陽군 일대의 수몰비극은 호남을 비롯한 전국적인 수재민 구호금품이 답지되어 흐뭇.

9.14, 밤9시55분 MBC時事討論 「水防대책 이대로 좋은가」 시간에는 朴炳柱本회이사(工博·弘大大學院長·국토개발연구원장) 崔榮博(工博) 高大교수가 나와 수방대책의 문제점과 미봉적인 대책을 경고.

堤防관리에 쓸 河川부산물 판매대는 ?

○……한편 다음날인 15일 밤11시 MBC-TV 「긴급진단 漢江독」 특집에서도 崔榮博교수는 「제방도 수명이있다」면서 직할河川の 관리를 건설부가 地自體에 위임한 代身 모래·자갈등 河川부산물 販賣代錢을 제방관리비에만 쓰게했으나 地自體의 재정빈곤으로 탄곳에 사용되는 현실에 一針. 朴炳柱박사도 「댐放流의 水壓이 강해지고 있어 護岸의 堅固性이 問題」라고 警告一. <次葉계속>

앞으로 건설될 堤防은 堤内地에 車道건설

○……같은 9.15, 밤11시 KBS-1TV 深夜討論「治水의 根本대책은?」에서도 각계 권위진이 건설부 韓守根제 2차관보와 서울시 건설국장에게 제방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하면서 天災나 人災나를 둘러싼 공방도 있었으나 결국 天災쪽으로 낙착. 이날 韓차관보는 침착한 자세로 소상히 질의에 응답하여 많은 궁금증을 덜게했는데 앞으로 건설될 제방은 堤内地에 2次線의 車道를 併設하여 永久的保障이 되게 할 계획도면을 선보이기도.

쓰레기버리는 者를 미워하는 간곡한 부탁

○……9.17, 밤10시부터 약 1시간동안 계속된 KBS-1TV 가요무대(계절의 문턱에서)에는 40여년 만에 고국을 찾은 중국교포들도 방청했는데 진행자인 김동건아나는 그의 독특하고 유창한 설명으로 가을을 맞아 국립공원등 명승지탐방객들이 지난여름의 쓰레기소동을 되돌아 반성, 선진국민으로서 「버리지 않는 국민이 되자」고 간곡히 부탁. 관객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는데 버리는者를 미워하는 언론의 자세가 때늦긴하나 크게 주효할듯. [香]

中央部處업무 756種 地自體등에 이양 國立公園 · 災害對策은 內務部移管등

총무처, 年內관계法令 · 職制개정코 來年부터 施行계획

정부는 6공화국이 표방해 온 행정민주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가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앙부처 기능중 집행적 규제적 성격의 업무를 감축해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일부기능에 대한 소관부처를 조정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각종 수질관리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국립공원관리기능의 관장부처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조정하는등 모두 12개의 중앙부처기능을 이관·조정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중앙부처의 집행업무 7백56種을 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민간단체등에 이양기로 했다.

李衍澤총무처장관은 10.22.이같은 내용의 정부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올해안에 관계법령과 직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馬事會가 농림수산부에서 체육부로, 공공도서관기능(학교도서관 제외)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관장부처가 조정되고 건설부의 공업항건설과 路上및 路外주차장관리기능도 각각 해

운항만청과 교통부로 이관된다.

또 부동산중개업 관리기능이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한국여성개발원관광기획관이 보사부에서 정무제 2장관실로 넘어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등에 이양되는 7백56건의 중앙업무는 △국도유지관리기능을 건설부에서 市道로 이양하는등 지방위임 2백80건 △보험대리점 허가를 재무부에서 보험감독원에 위탁하는등 민간위탁 48건 △창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등 규제완화 4백28건등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자연보호기능은 내무부와 환경처가, 해양오염방지기능은 내무부 환경처 해운항만청 수산청등 관련부처가 협의체를 구성, 상호공조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李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내무 농림수산 보사부등 다른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규제성격의 업무를 대폭 줄일방침』이라고 밝히고 『특히 부처기능조정으로 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